

* 지난주 강단제목 : 정의와 공의를 선포한 전도자 아모스 (암 5:24, 마 23:25)

(1부) 오전 8:30 · 인도 : 심한결 목사, 설교 : 정윤돈 목사

(2부) 오전 11:00 · 인도 : 박범서 목사, 설교 : 정윤돈 목사

- ★ **입례송** | 오르간
- ★ **예배의 부름**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24)
- ★ **응답송** | 찬양대
- ★ **예배선언** |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 ★ **신앙고백** | 사도신경(새번역) / 다같이
- ★ **경배의 찬양** | 4장. 성부 성자와 성령 / 다같이
- ★ **고백과 주기도** |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주기도송) / 다같이
- ★ **성서교독** | 79. 요한복음 15장 / 인도자와 회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다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5-11)

- 찬송 |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 날 / 다같이
- 중보의 기도 | (1부) 이명 장로 (2부) 김영진 장로
- 성경봉독 | 이사야 40:31(구약 1016쪽), 베드로전서 5:10(신약 383쪽) / 인도자
- 찬양 | (1부) 주님만 의지하는 삶 / 시온찬양대 (영상)
 (2부) 위대하신 주를 찬양 / 시온찬양대 (현장)
- 말씀의 선포 | **고난 중에 더욱 온전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복음으로 여는 베드로전서- / 설교자
- 봉헌 |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 다같이
- 교회소식 | 설교자
- ★ **결단의 찬송** | 예수 전하세 / 다같이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두 전하세
 사단의 왕국을 깨뜨린 왕의 왕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주의 주
 죄에서 해방하신 어린 양 예수 감시하세 찬양하세 증거하세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두 전하세

- ★ **파송의 말씀** | 설교자
- ★ **봉헌기도·축도** | 정윤돈 목사

다음 주 기도 : (1부) 유경형 장로 (2부) 최영철 장로

★ 표는 일어서서 · 경건한 예배를 위하여 휴대전화의 전원을 꺼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부서예배

유치부	오전 11:00	인도, 설교 : 이현규 준목 · 장소 : 3층 제2랩넌트실
태영아부	오후 2:00	인도, 설교 : 이현규 준목 · 장소 : 3층 제2랩넌트실
어린이부	오후 2:00	인도, 설교 : 박범서 목사 · 장소 : 1층 비전홀
중고등부	오후 2:00	인도, 설교 : 심한결 목사 · 장소 : 5층 참사랑홀
대학청년부	오후 3:30	인도, 설교 : 박범서 목사 · 장소 : 5층 참사랑홀

* 매월 마지막 주 주일은 어린이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연합으로 예배드립니다. (장소 : 5층 참사랑홀)

수요기도회

시간 : 오전 10:30 / 오후 7:30 · 장소 : 1층 비전홀

기도	(오전) 최숙영 집사 (오후) 김은영 권사
인도, 설교	(오전) 심한결 목사 (오후) 박범서 목사

다음 주 기도 : (오전) 박인자 권사 (오후) 이서은 권사

금요심야기도회

시간 : 오후 8:00 · 장소 : 1층 비전홀

기관보고	예배국
설교	이현규 준목

다음 주 기관보고 : 관리국

새벽기도회

월~토 새벽 5:30

(월) 심한결 목사	(화) 이현규 준목	(수) 이현규 준목
(목) 박범서 목사	(금) 박범서 목사	(토) 심한결 목사

2022 *새로운* *Rute* 應答의 永遠

참사랑교회

진드망대
신교망대
치유망대

(단12:3, 막16:15-20)

교회소식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매주 주일 오전 10시 20분부터 10시 40분까지 4층 당회실에서 새가족교육이 진행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안내위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친절히 신앙생활을 도와드리겠습니다.

■ 교회소식

- 다음 주 주일(11월 17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한 해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주일이 되도록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헌금은 본교회 일반헌금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일반헌금 : 신한은행 100-013-769840 (참사랑교회)
 - 입금하실 때 반드시 이름과 헌금명을 함께 기록해서 입금하시면 되겠습니다.(예 : 000 추수)
- 추수감사절(11월 17일) 세례식을 위한 세례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담당 : 박범서 목사)
- 중직자대학원 강의가 오늘 오후 5시에 1층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 대학복음화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 램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훈, 박수환, 안도근, 이주형, 장혁준, 차승민, 황다인, 황세희)
 - (1) 명단에 누락된 수험생이 있으면 교역자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2)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을 위한 축복기도회가 오늘 주일 2부예배 후 4층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 (3) 대학복음화를 위한 집중기도회가 대학입학수험능력시험일인 11월 14일(목) 오전 8시 30분부터 3층 제2램프실에서 있습니다.
- 이번 달부터 진행될 본교회의 연말 일정을 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7 연말교역자회의, 12.8 연말당회, 예결산위원회, 연말제직회, 청지기임명, 공동의회)
- 12월 22일(주일) 오후 5시에 있을 '2024 성탄음악회' 연합성가대 대원을 모집합니다. 아래 내용을 보시고 램프들의 많은 신청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 도상철 장로, 최송화 권사)
 - 1) 대상 : 초, 중, 고 대청 램프
 - 2) 연습일정 : 11월 24일(주일)부터 매주 주일(초등 : 3:10~3:30분까지, 중고대청 : 1:10~1:40분까지).
- 구원의 길 노트를 구매하시고자 하는 성도분은 각 지역 전도인 또는 구역장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1권 당 5천 원, 2) 담당교역자 및 중직자 : 심한결 목사 & 김경희 장로.
 - 3) 입금계좌 : 기업은행 01089778237 김경희 / 5천 원(1권당)
 - ① 입금자명은 반드시 신청자와 동일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② 여러 권 신청하시는 경우 입금자명 뒤에 숫자를 붙여주시기 바랍니다.(예 : 000 2)
- 연말에 참사랑 램프 해외어학연수가 진행됩니다. 많은 성도분들의 기도와 중심을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 * 본교회 장학헌금계좌(신한은행 100-033-576780)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입금명 : 000 어학)
- 예배 혹은 교회 출입 시에 실내용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주일오전예배 - 1부 : 오전 8시 30분, 2부 : 오전 11시. 장소 : 5, 6층 참사랑홀
 - 2) 수요일오전예배, 수요일저녁예배, 금요일아기도회 / 1층 비전홀
 - 3) 매일 새벽기도회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녹화하여 새벽 5시 30분에 전체 소통방에 올라갑니다.
 - 4) 주일 각 부서의 예배시간입니다.
 - (1) 오전 11:00~12:20 유치부 (2) 오후 2:00~3:20 태영아부
 - (3) 오후 2:00~3:20 어린이부, 중고등부 (4) 오후 3:30~4:50 대학청년부
 - (5) 매월 마지막 주일은 오후 2시부터 램프부서 연합예배로 드립니다.
 - 5) 다락방 및 지교회 모임은 시간을 정해서서 줄이나 전화통화, 유튜브를 통해 라이브나 녹화를 하여 양육과 교제와 말씀포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6)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은 가능하면 토요일에 헌금을 아래의 계좌로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입금하실 때 이름과 헌금명을 함께 기록해서 입금하시면 됩니다. (예금주 : 참사랑교회)
 - (예 : 000주정 / 반드시 한글기준 7글자 이내)
 - 일반헌금 : 신한은행 100-013-769840 - 주정, 십일조, 감사, 절기, 차량, 기타헌금 등
 - 헌당헌금 : 신한은행 100-022-072886 • 장학헌금 : 신한은행 100-033-576780
 - 선교헌금 : 신한은행 100-033-576822 • RUTC헌금 : 신한은행 100-035-010731
 - * 헌당, 장학, 선교헌금, RUTC헌금을 제외한 헌금은 일반헌금 계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 기말 및 교우소식

- 교역자의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돈 담임목사 : 11.12~13 제8차 아시아산업인대회 - 인도네시아 발리)
- 대학입학시험(11월 14일 목요일) 일정을 치르고 있는 수험생 램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훈, 박수환, 안도근, 이주형, 장혁준, 차승민, 황다인, 황세희 / 명단에 누락된 분은 교역자일로 알려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 군과 해외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단은 주보 14면에 있습니다.)

교회소식

4. 교우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권사, 김원일 집사, 손정환 집사, 강돌봉 집사, 이영경 집사, 이순덕 권사, 박숙자 집사)

■ 찬사량 RUTC소식 (정치, 경제, 문화, 보건, 복지, 과학, 예술, 체육, 예능, 교육, 군경, 공무원)

1. 찬사량 서밋어린이집에서 만0~5세 원아를 모집합니다. (문의: 김은영 원장 010-4871-2609)
2. 금요일시대를 준비하는 찬사량 RUTC 램넌트의 활동신청을 받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내용을 보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및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체카톡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서예교실: 매주 토요일 10시, 2층 식당. (담당: 노선희 권사 010-6228-5700)
 - 2) 트라픽체조교실: 당분간 운영중지. (담당: 정수환 집사 010-5527-6067)
 - 3) 스키&스노보드: 동계. (담당: 박찬열 집사 010-8760-0756)
 - 4) 탁구교실: 매주 토요일 11:50분, 2층 로비. (담당: 최혜숙 권사 010-9430-9862)
 - 5) 수목캘리그래피: 첫째, 셋째 토요일 19:00, 2층 식당. (담당: 김순호 장로 010-8630-4414)
 - 6) 기타클래스: 매주 토요일 14, 17, 19시, 4층 당회실. (담당: 이명 장로 010-2222-7624)
 - 7) 축구&풋살: 한 달에 1번. (담당: 김승훈 집사, 이진형 램넌트 010-2098-3141)
 - 8) 트리니티찬양교실: 첫째, 셋째 금요일 14:30분, 3층 제2램넌트실. (담당: 임예진 권사 010-6225-9661)
 - 9) 트림캣클래스: 매주 토요일 17:00, 4층 승가대실. (담당: 김경현 집사 010-2611-3152)
 - 10) 드로잉클래스: 매주 주일 17:45, 3층 제3램넌트실. (담당: 조수영 집사 010-3777-8315)
 - 11) 북음영어클래스: 주일(성인) 19시, 토(RT) 3:30분, 1층 초등부실. (담당: 주은경 권사 010-9542-8212)
 - 12) 드럼클래스: 매주 토요일 6, 7시, 5층 찬사량홀, 8시 1층 비전홀. (담당: 김승훈 집사 010-2098-3141)
 - 13) WIO스마트팝: 비정기적 열린 포럼 진행. (담당: 도상철 장로 010-5341-8988)
3. 연기, 연극, 영화, 방송, 뮤지컬 팀을 모집합니다. (담당: 박병서 목사 010-6335-3719)

■ 훈련 및 집회소식

1. 매주 토요일 산업선교(오전 9시), 전도학(오전 9시 40분), 핵심예배(오전 10시 30분)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www.rutc.tv)
 - 1) 핵심예배 헌금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의 전용계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은행 856701-04-233057 (사)세계복음화전도협회(핵심)
 - 2) 본교회에서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층 비전홀에서 핵심예배를 영상으로 함께 드립니다.
2. 제8차 아시아 산업인대회가 '3경제 회복(행18:1-4)'을 주제로 11월 12일(화)부터 13일(수)까지 인도네시아에서 진행됩니다.
3. 237화요제자훈련이 11월 19일(화) 덕평 RUTC에서 있습니다.

11월 행사 및 일정

구분	본교회 일정 / 세계복음화전도협회 일정
0주차	유럽산업인대회&유럽전도집회(10.29~31, 독일 뮌헨)
1주차	램넌트부서연합예배, 기관총회(3) / 제21차 2024 여교역자수련회(4), 237새가족원장사역자훈련(5, 덕평 RUTC)
2주차	세례문답식(16) / 제8차 아시아산업인대회(12~13, 인나 발리), 램넌트데이(16)
3주차	추수감사주일, 세례식, 연말교역자회의(17) / 237화요제자훈련(19, 덕평 RUTC)
4주차	램넌트부서연합예배(24) / RCA(27~29, 미국 LA)

11월 봉사위원 안내

구분	봉사위원
헌금위원	(위원장) 최양호 (위원) 정수환 박준민 손정환 신성원 신한수 장유진 전주를 전해진 정광아 정다경
성찬위원	(5층) 최철규 윤홍광 이은숙 최신혜 이미자 최양호 김금남 (6층) 여상훈 최진희
안내위원	(위원장) 여상훈 (1층) 이은옥 김미선 김은영 (5층) 이정운 유영석 김지영B (6층) 이수산나
주차안내	안수집사 전원

기도제목

■ 연간 기도제목

1. “전도망대 선교망대 치유망대(단12:3, 막16:15-20)”의 주역으로 전 성도와 램넳트가 인도받고 세워지게 하소서.
 - (1) 우리 교회의 절대목표인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모델과 3천 제자시스템을 완성하게 하소서.
 - (2) 선교의 사명을 붙잡고, 나의 237나라를 정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가는 곳마다 선교의 문이 열리게 하소서.
 - (3) 오직 복음과 말씀으로 영혼, 정신, 육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현장을 치유하는 증인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2. “제1, 2, 3 RUTC 응답의 영원”의 해에 영원한 것을 가지고 기다리며, 오직에 집중하여 영원한 작품과 영원한 유산을 남기는 일에 전 성도와 램넳트가 도전하게 하소서.
 - (1) 영원한 언약(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을 24, 25, 영원으로 누리는 가운데 7망대가 각인, 7여정이 뿌리, 7이정표가 체질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올 때까지 기다리게 하소서.
 - (2) 제한적 집중, 선택적 집중, 원니스 집중을 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세 절기, 세 가지 뜰, 금요일시대를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영원한 작품을 남기게 하소서.
 - (3) 무한대의 엄청난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유산을 모두가 유업으로 받고 사용하고 237과 5천 종족에게까지 전달하는 일에 도전하게 하소서.

■ 2024년 참사랑교회 ‘24시 기도문’

1. 나와 우리 교회가 1 천만 제자를 세우는 주역으로 쓰임 받게 하옵소서.
2. 하나님이 주신 나,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게 하옵소서.
3. Heavenly Power 안에서 Heavenly Talent, Heavenly Mission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4. 어떠한 상황과 문제 앞에서도 오직 그리스도로 담, 결론, 끝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5. 절대 불가능한 나의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게 하옵소서.
6. 오직 그리스도로 완전, 충분, 모든 것이 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7. 날마다 강단말씀이 성취되어 70현장에 70지교회를 세우는 70인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8. 생명 살리는 300영접운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9.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이 지속되어 참사랑교회 3천 제자의 응답이 앞당겨지게 하옵소서.
10. 전도의 망대, 선교의 망대, 치유의 망대로 쓰임 받게 하옵소서.

현당을 위한 헌신

70인 요원 (23명) /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계3:12)”
김경수-강승자-김대식 최정웅-전정아 유경형-리종화 주재진-권혜경 김경환-최복순 전인숙-김원일 김경화-임근일(양은숙) 신승훈(박영인) 박점순 정연규(이은숙) 김중복(한명희)
300인 용사 (130명) / “내가 ... 삼백 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 주리니(사7:7)”
양은숙 윤두영 강창숙 정운돈 최신영 최복식 최신주 오국환 이은희 최창영 박지영 박동영 최진희 최영철 최후순 조남은 이은옥 최명홍 이계옥 구자성 송영희 허경원 홍승희 박희순 이영순 유승범 주은경 박영재 양경심 강현자 김영길 박혜숙 이수용 이미지 김석재 손혜옥 여동훈 백소정 서정례 박철남 이상춘 서희석 나향남 이승재 심주환 김현숙 정민호 이서은 이상곤 김경화 송길호 최신혜 채용민 이효숙 오신자 정세완 박희영 민경환 권은희 최승화 주철우 정선희 이명재 구윤진 여상훈 노선희 김요셉 김혜정 김남숙 박준민 황인선 배형석 박인자 장성순 박난순 최양호 오난희 김 현 임경미 김순자 김미선 최철규 여준석 김성열 배명자 신우희 배승찬 장영호 김순호 이남현 오영숙 김태운 정향란 강요한 윤홍광 박광현 이신순 박성혁 이희숙 왕진상 김선옥 김중남 김주영 김영진 윤소현 박영인 변연숙 김성순 백순덕 김요한 임혜연 김복님 김옥천 김순이 서성원 박서진 박범서 강경현 김금남 이현주 장경희 정년영 유경선 양은숙 공영호 박봉기 박준석 이영희 정수환 김선희

지난주 하나님께 드린 예물

주일헌금	정운돈 최신영 최정용 전정아 박범사 김진아 심한결 정지혜 이현규-김수진 신성민-김이영 전인숙-김원일 이병부 김정엽 유경형 최영철-최후순 주재진-권혜경 이수용 오국환 정연규 여동훈 박동영-최진희 최명홍-이계옥 정세완 신승훈 장영규 리종화 김 현-임경미 여준석-양경아 김경희 배승찬 양경심 김석재-손혜옥 임근일 최칠규 윤홍광 이은숙 최신혜 이미자 최양호-오난희 김금남 이상훈-노선희 최진희 김준일-최숙영 박영인 유승범-주은경 도상철 김순호 이 명 김영진-최혜숙 이명재-구윤진 이근재 강현자 정년영 송영희 오신자 김계자 이정운 배형석-박인자 장성순-박난순 손환식-양은예 이정택-이은순 김수형 김애경 김해수 주예진 홍주연 호단수 장소녀 김정길 최재경 정향란 이순근 김춘례 이순덕 이은옥 조유연 임영순 정화영 김영순 유성규-신혜선 김순자 이영순 장경숙 백순범 송형자 조성근-김갑태 정민호-이서은 유충현 강공이 유승호 임소순 김경애 유계숙 여수아 김정연 윤순옥 이현주 김세희 이진형 김창균-임예진 이주형 박희영 이효숙 채송아 이이름 조현지 김태운 이아연 이정미 박찬원 양은숙 정수환 정예송 이기애 윤태자 임경미 이연균 이은희 김현상-이미화 김이리 한경숙 이민수-김숙희 임혜연 유영석 김영희 나경철-신현식 최송화 여현지 홍경아 조부영 장유산-이정수 오유라 김미선 김지영 김정연 윤차현 방주은 이민형 이진형 김승훈 여현지 배준서 배현서 이주형 무명 ²⁾
십 일 조	정운돈 최정용 최신영 박범사-김진아 이현규-김수진 김원일-전인숙 오신자 신혜선 양경심 장소녀 박점순 김경애 정년영 유충현 강공이 임소순 윤순옥 김옥순 ³⁾ 배승찬 이 명 박준민 홍경아 최양호 이효숙 김태운 신성원-박영인 이상훈 고진순 호민수 박지영 박동영 김준일 도상철 최명홍 최보인 박은서 임혜연 배준서 정은유 한태빈 심지연 심주연 김혜원 김유은 주이서
감사헌금	정운돈 최신영 최정용 장소녀 김미선 이현우 김경애 양경심 박학규 정민호-이서은 김수형 최양호-오난희 이효숙 정세완-박희영 이이름 방주은 정수환 백순범 윤혜영 최영국 김윤지 이은희 최신혜 박영인 이계옥 최송화 이은숙 유경형-리종화 박동영-최진희 니영수 홍경아
총회주일	이수용 배승찬
차량헌금	박동영-최진희
일천번제	최신영
선교헌금	최정용 윤홍광-장경숙 오신자 임소순 양경심 정년영 장소녀 임영순 최양호-오난희 김창균-임예진 정수환 조현지 신성원-박영인 정예송 방주은 고진순 김순호 김승훈 김이리 유영석 박동영-최진희
현당헌금	최신영 최정용 전정아 심한결-정지혜 양경심 장소녀 임소순 오신자 임영순 최양호-오난희 조현지 방주은 정수환 정예송 신성원-박영인 고진순 김순호 김승훈 박동영-최진희 조부영 김준일-최숙영
장학헌금	최정용 정년영 장소녀 윤홍광-장경숙 양경심 최양호-오난희 신성원-박영인 방주은 정수환 김순호 박동영-최진희 김승훈
RT 어학연수	유경형-리종화 정수환 김승훈 최양호-오난희 신성원-박영인 방주은 고진순 김승훈 박동영-최진희
RUTC헌금	이현규-김수진 정년영 장소녀 김금남

* 이름이 누락되신 분들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2024. 10. 30. ~ 2024. 11. 5.)

현당헌금 (2024년도 합계)	77,497,472원	차량 구입헌금 (2024년도 합계)	950,000원
참사랑 RUTC헌금 (2024년도 합계)	19,404,075원	랩넛어학연수헌금 (2024년도 합계)	2,720,000원

현당대출잔액 : 일본법화 472,000,000엔 (환화 4,389,600,000원 / 100엔환율=930원기준)	
일반헌금계좌 : 신한은행 100-013-769840	참사랑교회 현당헌금계좌 : 신한은행 100-022-072886
선교헌금계좌 : 신한은행 100-033-576822	참사랑교회 장학헌금계좌 : 신한은행 100-033-576780
참사랑 RUTC : 신한은행 100-035-010731	참사랑교회RUTC

2024년 구역조직 - 1교구

- 교구장 : 정윤돈 목사 | 담당교역자 : 박범서 목사 | 총무 : 이미자 장로

지역/ 전도인	구역 (담당장로)	구역장	권찰	구 역 원 (* 밑줄은 미션 홈 이상 훈련수료자)
1지역/ 최진희	①오금1 (오국환)	박인자	이은희	오국환 이은희 오유라 오이라 박점순 이신순 배형성 박인자 배영광 정우연 배고은 최일숙 유제숙 장미선 김희서 김원준 김민준 김애경
	②오금2 (박동영)	김주영	주은경	이재풍 김주영 이승현 이지훈 유승범 주은경 유현나 유현상 유준상 유민상 정윤돈 최신영 정애숙 정예준 정예진 김효경 문예은 최하나 최한별 주종성 박학규
	③오금3 (여동훈)	김지현	최진희	박동영 최진희 박서운 박찬열 최정을 전정아 최봉식 최신주 최해나 김요한 김지현 김운진 김윤서 김운주 김운성 조영희 장혁준 정다경 윤태민 윤예빈 정혜찬 김승훈
2지역/ 이미자	④방이1 (이수용)	양경아	유경선	이수용 이미자 이채은 여준석 양경아 여 명 여수아 이은순A 김흥기 문길순 정철호 유경선 정동주 정동훈 김선엽 박은서 김유진 오은사 김갑례 임상식 이재준 이시연
	⑤방이2 (최칠규)	홍미경	박은진	최재혁 홍미경 최옥현 최모연 박은진 B 윤소현A 윤대현 윤차현 박현우 김성순A 김명자 김성배 조현지
	⑥천호 (유경형)	리종화	홍경아	유경형 리종화 이대수 홍경아 이지오 이태이 권우현 유승환 최아현 유나립 유하립 정민진 이영숙 홍형표 박철남
3지역/ 김금남	⑦잠실 (김요한)	박지영	조부영	박광현 조영주 박근혜 박지혜 조부영 양승현 양승우 최창영 박지영 최보인 권순민 최형란 권유나 권유빈 황규철 김소라 황다인 황세희 권구현 정재홍 전해진 정리아 김옥천 전민식 구순자 김대욱 박유신 김혜원 김기채 최영국 김윤지 최리오 고정호 고정협
	⑧송파 (임근일)	양은숙	박승숙	임근일 양은숙 임혜미 임혜연 유영석 박승숙 유세정 유진아 김금남 김수정B 김수민 김효민 김세희
	⑨하남 (김경희)	김영희	오난희	손완식 양은예 손보국 김영희 황혜주 손병순 배태현 심화순 배윤주 장대진 배미선 장다솜 배윤경 이정택 이은순B 김경희 A 현백규 김현아 전영중 이가원 조수영 최양호 오난희 최고은 김성재 윤태자 김준식 손보미 손재현 강정자 최칠규 한영화 최종인 최종현 이현규 김수진 심성하 유지열 송수민 한소연 김유나 스모모 강지우 홍주원
4지역/ 김계자	⑩오금4 (정세완)	박희영	임경미	정세완 박희영 권영숙 구성화 김춘례 임수미
	⑪오금5 (주재진)	신혜선	권혜경	주재진 권혜경 주예진 임경순 양순옥 임선규 김 현 임경미 김 수 김혜린 신혜선 유연정 유지훈 김계자 김금녀 이종남 김영순
	⑫오금6 (최명홍)	이계옥	최송화	원철호 홍정아 강예은 강예림 최명홍 이계옥 최송화 김영중 김준영 김민성 업찬웅 정수환 정재환 김수정 김성애 전성배

※ 위 명단은 각 구역원과 기도대상자의 명단입니다.

2024년 구역조직 - 2교구

- 교구장 : 정윤돈 목사 | 담당교역자 : 심한결 목사, 이현규 준목 | 총무 : 이명 장로

지역/ 전도인	구역 (담당장로)	구역장	권찰	구 역 원 (※ 밑줄은 미션 홈 이상 훈련수료자)
5지역/ 양경심	⑬올림픽1 (최양호)	장길순	이영순	이영순 유윤식 장길순 유효진 유윤재 박준석 설정화 박수환
	⑭올림픽2	-	이이름	정년영 허경열 허지선 박성진 박서연 김정연 이이름 박준영 박준은 박지유 김미선 이혜승 이혜준 이현우 에 코 한공순
	⑮올림픽3 (양경심)	이현주	황인선	박엽재 양경심 박주은 박주영 김수영 이현주 김지후 박준민 황인선 박수진 박수정 이은옥 조유연 조용연 이재윤 민희선 김기원 김도원
6지역/ 정선희	⑯강서 (김현)	정선희	강소영	도상철 채희은 도성용 구형경 이선미 구이라 구지후 이종관 서숙정 이지한 이주한 이정수 장유선 이진우 김민경 엄현식 최이름 엄지은 주철우 정선희 주이서 주이준 주이연 김경현 강소영 김유B 김소은 임영순 김명철 장유미 김지유 김형준 박현주 김민규 최영희 김정남 전은정
	⑰강남1 (김석재)	손혜옥	임소순	김수득 이미숙 김화광 김혜인 김석재 손혜옥 김주원 김혜원 임소순 천혜숙 강현자 김나경 김희경 김정진 강은혜 김지아 김정길 박순연
	⑱강남2 (김순호)	김순호	김경애	안경호 김순호 안도근 안나근 안예근 김원일 전인숙 김구영 빌 마 김의찬 김주찬 권세미 김경애
7지역/ 이명	⑲오금7 (배승찬)	이명	김숙희	구자성 송영희 배승찬 이 명 배준서 배현서 박범서 김진아 이기덕 김복란 이광훈 이명재 구윤진 김창균 임예진 김하은 김재승 신성원 이기에 신현옥 신지유 백순범 윤혜영 백소을 백하을 이민주 김주A 이하연 이하준 윤순옥 원태연 원아연 윤지은 박환희
	⑳오금8 (이명)	최혜숙	유경순	<u>오신자</u> 니콜라 박경아 라 나 아멜리 손정환 홍명숙 손가를 손하늘 여상훈 노선희 여준후 여선후 이군재 이순근 아산나 김영진 최혜숙 김시연 김시아 이 하 안지용 안수현 김순자 최영B 고대중 김희B 도정호 유경순 도규철 이연균 도지민 이병부 김정엽 김윤태 박숙자
	㉑오금9 (여준석)	이정미	이선아	안진정 문경화 안서운 안채운 안신영 한상만 이영주 한서영 한준열 김창대 이정미 김아리 김영A 정문철 이선아 정유호 정은유 위준승 이상구 이정미 이진형 이민형 이주형 문정민
8지역/ 최신혜	㉒문정 (장영균)	송미경	고진순	장영균 송미경 장현규 장현우 장이준 장이서 김명화 최민지 최민기 고진순 방주은 장소녀 김지용 조연희 조재형 김정B 유정빈
	㉓장지 (리종화)	최신혜	이미화	장성순 박난순 장하영 장하은 손길호 최신혜 송은수 송영민 송지수 박진순 박주봉 박주승 민경환 권은희 나경철 신현식 나주희 나종훈 이미화 김영C 김민영 김근호 배은영 박서이 박필수 박소현 박경구 박도경 박세연 박형진 류성미 박하늘 박하룬 박은선
	㉔기락 (정연규)	이은숙	최숙영	정연규 이은숙 여동훈 백소정 여현지 여종민 여은성 김태은 김준일 최숙영 김하은 김유A 김은성 임동영 장유진 이용도 최재경 이다연 이아연 정창호 김미현 정승주 정민호 이서는 노은현 유승민 마운경 유재훈 유현주 신현수 이은B 신민승 신연서 손상현 허가이
9지역/ 박영인	㉕거여 마천 (최영철)	박영인	이순덕	신승훈 박영인 신동윤 호민수 정은숙 박지현 천 용 김욱B 이 석 김재우 유충현 강공이 유승호 이정윤 이순덕 이영경 전주을 송형자 정화영 한주아 한태린 이유림
	㉖성내 둔촌 (윤홍광)	정향란	김은영	최영철 최후순 최요한 최지은 정향란 김은영 차영민 차승민 최두영 오주희 최하람 최하을 최하린 장영호 소선미 함조식 소속현 함재이 김해수 심한결 정지혜 심주연 심지연 최지원 조현우
	㉗고덕 (신승훈)	장경숙	김지영B	윤홍광 장경숙 윤 현 윤소환 윤하영 오인태 김자영B 오하림 오하윤 이채원 한경숙 변지영 김선옥 이효숙 채송아 채정우 박선주 송인애 이윤민 이윤건 박형석 강돌봉 박요셉 김지수 최미정

정의와 공의를 선포한 전도자 아모스

-복음으로 여는 아모스-

아모스 5:24, 마태복음 23:25

공부를 잘하고 1등을 하는 것보다 내가 그 현장에서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 열심히 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 일하면서도 성공하고 돈 많이 버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더 잘하려고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포기하면 안 된다. 영적인 것, 경제적인 것, 공부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원리다. 개인의 발전과 역사의 발전도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이루어졌다.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절대목표를 향해 노력하고 있다. 수 천 년 전 아모스서에 나오는 정의와 공의를 위해 싸우다가 지금의 인권, 자본주의가 되었다. 1688년에는 명예혁명이 있었다. 제임스 2세라는 영국의 왕 때 생긴 게 입헌군주제다. 왕권을 줄이고 의회를 통해 법적인 것들을 결정하는 기구를 만들었다. 당시는 종교개혁 이후였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개혁주의적인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정치적 지도자들이 입헌군주제를 만들었다. 이걸 보고 몽테스키외가 발전시킨 게 삼권분립이다. 법을 지키고 잘못을 벌하고 선한 사람을 지켜주는 게 세상적인 정의다. 물론 민주주의 제도에도 장, 단점이 있다. 표를 많이 받기 위해 무리한 공약을 내놓고 소수의 목소리를 약화시킨다는 문제가 있다. 대통령중심제에서 대통령의 권력이 너무 강하다고 생각되면 내각제가 주목을 받는다. 제도는 상황에 따라 변화하지만 완벽하지 않다.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것이다. 인간의 나라, 세상의 나라는 완벽하지 않다. 우리는 끊임없이 정의를 향해 가고 있고, 그 기준은 하나님 나라다.

아모스 5장 24절에 나오는 '정의'와 '공의'는 히브리어로 각각 '미쉬파트'와 '체다카'이다. '미쉬파트'는 법적인 올바름과 상벌, 공정한 판결이나 판단을 의미하고, '체다카'는 올바른 행동, 즉 공의로움을 뜻한다. 특히 '공의로움'을 뜻하는 단어 '체다카'는 올바르게 행동한다는 의미 이상이다. 정의와 공의를 같다고 느낄 수 있지만 '체다카'는 정의와 자비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즉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포함한다. 법적인 정의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지만 공의는 그걸 발전시키고 승화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 그것이 '체다카'이다. 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행동이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방법이기도 하다. 그래서 공의로움은 올바름을 넘어서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삶의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우리 교회에서 많은 장애인들을 돌보는데 사실 법적으로는 해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믿음의 양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는 필요하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이고 당연한 믿음의 행위이다. 법만 잘 지키면서 남을 사랑하거나 돕거나 회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게 공의는 아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다. 법적으로는 필요 없지만 복음은 아닌 경우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받은 우리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양보할 수 있다. 하나님은 공의가 없는 시대에 아모스를 불러 선지자로 부르시며 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신다.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다. 결국 완전한 '체다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 외적인 율법 준수만으로는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으며, 마음과 행동에서 이루어오는 정의와 공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게 예수 사랑이다. 아가페다. 아모스서는 이 사랑이 필요함을 말하고 있다. 정말 사랑을 입었다면 거둬낼 수밖에 없다. 당장 영적문제가 해결되고 주변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기적인 것들이 당장 변하지는 않지만 내 생각과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 '나는 사랑해야지, 양보해야지, 내 기준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지, 진도와 선교여야지' 할 때 하나님은 다 더해 주신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우리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그리스도를 내 삶과 영혼의 중심, 주인, 왕으로 영접할 때 되어진다. 우리를 위해 희생해서 사랑을 베풀고 용서하시고 기다려 주시고 괴, 땀, 눈물을 흘려주신 그리스도가 내 주인인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욕하고 종취할 수 있을까. 한 입에서 단 물과 쓴 물이 나올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결국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없기 때문에,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세상과 인생은 사적연산 하듯이 단순하지 않다. 그러나 그런 복잡한 세상도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으면 금방 답이 나온다. 요엘, 아모스서를 보면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을 매우 꾸짖으신다. 그러나 인간은 결국 그 길을 가고 고통을 당한다. 조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결국 또 잘못한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그 사람을 붙들신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고백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다. 그 고백

이 필요하다. 그게 방향이다. '죄'는 과녁, 방향을 벗어났다는 뜻이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하나님, 복음, 선교, 전도중심으로 살겠다는 방향을 가지면 그게 바로 구원이다. 지금 방향을 바꾸면 축복으로 들어갈게 될 것이다.

오늘은 구약성경 중 아모스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한다. 아모스서의 저자는 예언자 아모스이며, 이름은 '짐을 지는 자'라는 뜻이다. 아모스는 남유다 농사꾼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언하라고 하는 미션을 받는다. 내 일을 내가 잘하고 있는데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나, 이건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짐을 지어주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제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우리에게 영광과 축복을 더해주시다. 십자가 자체를 영광으로 생각해야 한다. 십자가를 영광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현상이 지옥이 된다. 아모스 선지자의 고향은 남유다의 드고아라는 작은 마을이었다. 선지자 아모스는 드고아에서 목자로 일하며 뿔나무를 재배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북이스라엘로 가서 예언활동을 하였다. 한글성경에서 '뿔나무'로 번역된 나무는 사실 '쉐크마', '돌무화과나무'다. 돌무화과나무 열매는 맛있지 않다. 좋은 열매는 부자가 따먹었고, 돌무화과는 가난한 사람들이 따먹었다. 아모스는 가난한 사람에게 돌무화과를 주고 헌신했던 사람이었던 것이다.

1. 아모스서의 1장부터 9장까지 핵심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

(1) 1장과 2장에서 선지자 아모스는 주변 나라들(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함과 동시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있다. 지금 우리 주변도 그렇다. 여기에 선교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응답받고 산업에도 축복받아야 한다. 대단한 걸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살리겠다는 중심을 가져야 한다. 온 세상이 전쟁과 재앙과 영적 문제와 마약에 들끓기 때문에 길이가 없다. 인간이 만든 제도들은 답이 아니다. 과학기술은 발전하는데 기술이 인간에게 유익하기만 하지는 않다.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완벽해진다.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이 언약을 붙잡을 때 내가 있는 현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2) 3장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해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경고한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꾸지람과 경고를 계속한다. 율법에서 벗어나면 재앙과 저주가 임하기 때문이다.

(3) 4장에서는 사치와 방종 속에서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통한 회개를 촉구한다. 잘 살고 좋은 집에 사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물질과 능력을 주시면 우리는 전도와 선교와 가난한 사람에게 베풀면서 쓰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부자들을 존경하지 않는데 미국은 부자들이 기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부자들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다. 모든 사람이 구제하고 돕는 게 생활화 되어있다. 복음적인 부분이다. 복음적으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은 성공한다.

(4) 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진정한 회개와 정의, 공의를 실천하기를 원하신다고 강조한다. 5장 24절에 "오직 정의와 똑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라는 구절은 아모스서의 중심메시지로, 형식적인 제사보다 진정한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께 중요한 가치임을 말씀하고 있다.

(5) 6장에서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부유층의 교만과 사치가 지적되며, 그 결과로 다가올 심판을 예고한다. 이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약자를 억압하고 있었다. 그런 시대적인 문제와 상황은 계속해서 오늘날까지 반복되어왔다.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6) 7장은 아모스의 첫 번째 환상(오 메뚜기, 불, 다림줄)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준다. 여기서 '다림줄'은 건물을 바르게 짓기 위한 도구이고 하나님의 기준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면 재앙이 임한다. 다림줄 환상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술라이어마허는 '절대존의 감정'을 이야기했다. 르네상스 이후 칸트를 비롯해 경험주의적인 사고 경향이 있어 모든 것을 이상적이고 합리적으로 보려고 하다보니 신이 필요 없어지고 신앙에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술라이어마허는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다고 했다. 그런데 칸트도 틀리고 술라이어마허도 틀렸다. 절대 이성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다. 우리 이상의 기준은 복음이다. 하나님이 기준을 만드셨는데,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기준을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다. 그래서 헤겔은 '절대정신'을 이야기했다. 모든 우주의 원리가 어떤 정신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이다. 절대정신과 하나님의 차이는 '절대정신'은 인격이 없는 시스템, 원리일 뿐이라는 것이다. 어떤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을 만든 분이 있다. 우리는 그 분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한다. 골로새서 2장 3절에서처럼 세사학문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초동학문에 불과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초월적 존재시고 전지전능하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인간과 차별적이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하시면 어떤 문제와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

(7) 8장에서는 마지막 수확의 환상을 통해 이스라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경고하며, 이스라엘의 영적 빈곤과

타락을 강조한다. 수확은 마지막 날을 의미한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심판하시는 날이다. 마지막 날에는 진짜 응답받고 상을 받는 날이 오고, 하나님 앞에 매를 맞는 날도 온다. 여러분에게 대단한 걸 걸라하는 게 아니다. 방향을 바꾸고 인정하라는 것이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라는 말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살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를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방향을 바꾸는 게 회개다. 목사님도 마찬가지다. '나'를 전하면 여기 설 사람이 아무도 없다. 메신저와 메시지의 잘못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아브라함과 모세도 다 잘못했지만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도 메시지를 주신다. 그들이 그랬지만 너희는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을 버리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고 하신다.

(8) 마지막 장인 9장에 보면 회복과 희망의 메시지로 끝맺는다. 심판 후의 회복을 약속하며,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는 소망을 전한다.

2. 아모스에 담겨 복음의 요철을 알아보고 복음과 정의에 대하여 신학적인 관점으로 설명드리고자 한다.

(1) 첫째로 아모스에 담긴 복음과 그리스도이다. 아모스는 주로 심판과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다루지만 그 안에는 복음적 의미와 그리스도에 대한 암시가 담겨 있다. ① 아모스 5장 24절에는 “오직 정의를 돌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이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단지 제사나 외적인 의식보다 진정한 정의와 공의를 원하신다는 것을 강조한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적인 종교생활을 비판하시며 참된 내면의 거듭남과 이웃사랑을 요구하셨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율법을 지키면서 공물과 사랑과 용서와 헌신 없이 있는 까마른 상태였다. 정의는 지켰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그 사람에게 없었던 것이다. 우리도 그렇게 매마르게 살아가는 때가 많다. 이 구절은 예수님이 강조하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부합하며, 진정한 의와 사랑의 실천을 통해 복음의 본질을 실현하려는 주님의 명령이다. ② 아모스 9장 11절에는 “그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들을 막으며 그와 같이 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다. 아모스서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신다. 다윗의 장막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더불어 장차 올 메시아 왕국을 상징한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받을 축복도 상징한다.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교회와 후대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회복시킬 것임을 약속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붙잡을수록 그 시간표를 앞당기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 나라가 그분을 통하여 완성될 것을 암시하고 있다. 또한 이 구절은 메시아적 예언으로 예수님을 통한 회복과 구원의 약속을 예표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8백 년 전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계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평안과 헌신과 에덴과 영생과 정의와 자유와 발전도 있다. ③ 아모스 9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회복시키고 풍성한 축복을 부어주겠다는 약속을 담고 있다. 이는 복음에서 나타나는 영적 회복과 구원의 약속을 상징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회복을 예표한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풍성한 생명과 영원한 평안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볼 수 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땅대로 세우시고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는 나무로 심으실 것이다. 계속 성령의 열매, 경제의 열매 맺는 후대가 되셔야 한다. 열매는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된다. 내 문제 안에서 겨우 먹고 사는 삶이 아니라 열매 맺는 삶을 사시기 바란다. 그제 공의로운 삶이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기적이지만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방향을 바꾸시기 바란다. 방향을 바꾸면 복의 근원이 되기 시작한다.

(2) 두 번째에서는 신학적으로 해석한 공의와 정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다. 신학적이란 건 논리적이고 체계적이라는 의미이다. 아모스서에서 강조하는 "공의"와 "정의"가 복음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중요한 주제이다. 겉으로 보기에 공의와 정의의 강조하는 것은 율법적이고 정죄의 메시지로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복음적으로 재해석하고 적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공의와 정의 안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를 볼 수 있다. ① 정의와 공의의 본질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와 정의는 단순한 사람을 처벌하거나 판단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물을 올바르게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반영한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분의 성품에서 비롯되며, 그분의 뜻에 반하는 악과 불의를 바로잡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을 포함한다. 자연과학에서는 우주만물이 미세조정되어 있다고 말한다. 자연과학 안에서도 질서를 지키고 있다. 인문학에서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정의는 모든 질서를 지켜준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질서를 활용하는 게 공의다.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는 인간의 형벌적인 정의와 다르게 사랑과 회복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공의는 부모님과 같다. 세상 법이 정죄하기 위함이라면 부모님의 꾸지람은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② 율법과 복음의 관계이다. 구약에서 율법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는 지침이었다. 율법의 목적은 사람에게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기준에 미치지 못함을 알게 하여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이게 율법의 목적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심판을 경고하지만 최종목표는 회개와 복음을 통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다. 바울은 율법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으로 표현하며, 율법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지난주 주일낮에배 메시지

한다고 말한다. ③ 공의와 사랑의 만남이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의와 사랑이 완벽히 조화 된다는 점이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정의를 외면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그 심판을 우리에게 대신 집행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짊어지게 하셨다. 이로써 공의는 이루어졌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우리에게 전해졌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지점이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못하는 정의를 가지고 계시다. 인간은 죄의 대가를 치루지 못한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십자가는 정의와 사랑이 만나는 지점이다. ④ 회개와 복음의 상관관계이다. 아모스서의 핵심메시지 중 하나는 참된 회개를 통한 구원의 길이다. 내가 영적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생각을 바꾸고 방향을 바꾸고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 회개는 벗어난 방향에서 돌아선다는 뜻이다. 마음을 바꾸는 것이다. 그 사랑만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는 신약의 복음메시지와 일치한다. 예수님께서도 외적인 종교적 행위보다는 마음의 변화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를 강조하셨다. 회개는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고,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첫 걸음이다. ⑤ 복음적 결론이다. 아모스서의 공의와 정의의 메시지는 죄와 불의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상기시키지만 그 심판의 목적은 단순히 정죄가 아닌 참된 회개를 통한 회복이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는다. 아모스서에서 외치는 정의와 공의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된 복음의 모형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공의와 사랑이 모두 충족됨으로써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결국 아모스서에서 강조되는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의 성품이자 복음의 기초가 되며,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완전히 성취되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공하는 중요한 복음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러분도 현장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증거하는 아모스와 같은 전도제자가 되시기 바란다.

오늘은 7당대, 7여정, 7이정표 중에서 7이정표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7이정표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안디옥교회, 에베소교회, 빌립보교회, 로마이다.

① 갈보리산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해결했다는 것이다. ② 그리고 감람산에서 승천하셨다. 승천하신 후에는 다시 오신다고 하겠다. 재림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다. 우리는 전도, 선교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그것까지도 포함된다. ③ 마가다락방에는 복음 때문에 목숨 걸고 모인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 사람들도 다 옛 체질이 있기 때문에 부족함 부분들이 많았다. ④ 그래서 안디옥교회에서 새로 시작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분들은 목숨 건 오직 예수였지만 옛 틀을 벗어나지는 못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에 대한 부분이 약했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안디옥교회를 쓰셨다. ⑤ 안디옥교회에서 파송했지만 세계복음회의 모델은 에베소교회였다. ⑥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 새로운 현장에서 계속 갱신하면서 전도가 확산되었다. ⑦ 로마까지 복음이 전해졌다. 우리도 계속 갱신하고 개혁하면서 나아가야 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끝으로 복음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237나라 5천 종족의 현장에 세워가는 전도당대, 선교당대, 치유당대로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참사랑 RUTC현황 (예제능체임교실)

	시간 & 장소	담당자		시간 & 장소	담당자
여행캠프	모집 시	정창호 집사	서예교실	매주 토 10:00, 2층 식당	노선희 권사
트릭킹제조교실	당분간 운영중지	정수환 집사	스키&스노보드	동계	박찬열 집사
탁구교실	매주 토 11:50, 2층	최혜숙 권사	수목캘리그래피	1, 3주 토 19:00 2층 식당	김순호 장로
기타클래스	매주 토 14, 17, 19시 4층 당회실	이명 장로	축구&풋살	한달 토 오후	김승훈 집사 이진형 RT
트리니티찬양교실	1, 3주 금 14:30 3층 제2랩넌트실	임예진 권사	트럼펫클래스	매주 토 17:00 4층 성가대실	김경현 집사
드로잉클래스	매주 주일 17:45 3층 제3랩넌트실	조수영 집사	복음영어클래스	매주 토 15:30, 주일 19시 1층 어린이부실	주은경 권사
드럼클래스	매주 토 18, 19, 20시 5층 분당, 1층 비전홀	김승훈 집사	WIO스마트팜	비정기적 열린 포럼 진행	도상철 장로

교회를 섬기는 이들

담임목사	정윤돈 010-8033-5678	부목사	심한결 010-8206-2024	협동전도사	전인숙 010-8881-5222
원로목사	최정웅 010-5260-5511	준목	이현규 010-9736-3556	사무간사	박난순 010-9930-5558
부목사	박범서 010-6335-3719	교육전도사	배고은 (네덜란드파송)		
전도인	최진희 이미지 김금남 김계자 양경심 이명 최신혜 박영인				
장로	(시무) 유경형 최영철 주재진 윤두영 이수용 오국환 정영규 여동훈 박동영 최명홍 정세완 김종복 신승훈 김성열 장영균 라중화 김선옥 김현 허경열 서성원 여준석 김경희 김요한 배승찬 양경심 김석재 임근일 최철규 윤홍광 이은숙 최신혜 이미지 최양호 김금남 여상훈 최진희 김준일 박영인 유승범 도상철 김순호 이명 김영진 (협동) 이군재 박현주 전민식 (해외) 최봉식 (은퇴) 이명재 강현자 정년영 송영희 오신자 (명예) 박철남 김계자 이정운				
찬양대	(지휘) 황인선 이종관 (오르간) 이서은 임예진 (피아노) 최신영 최승화 이석 최후순 (클라리넷) 정예승 (바이올린) 김재우 최보인 고정협 (플루트) 최종현 강소영 (첼로) 조유연 (트럼펫) 김경현				

예배 및 모임 안내

예배			교회학교				
구분	시간	장소	구분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오전 8:30	5층, 6층 참사랑홀	태영아부	주일 오후 2:00	3층 제2랩넌트실		
	2부 오전 11:00		유치부	주일 오전 11:00			
	오후 2:00	어린이부		주일 오후 2:00			
	오후 3:30			1층, 3층, 5층 (부서별 예배)		1층 비전홀	
수요기도회	수 오전 10:30	1층 비전홀	중고등부	주일 오후 2:00	5층 참사랑홀		
	수 오후 7:30		대학청년부	주일 오후 3:30	5층 참사랑홀		
금요심야기도회	금 오후 8:00			세계복음화전도협회훈련	구분	시간	장소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5:30				영상	구분	시간
자체훈련			세계복음화전도협회훈련				
구분	시간	장소	구분	시간	장소		
새가족훈련	주일 오전 10:20	4층당회실	산업선교	토 오전 9:00	1층 비전홀		
복음소식	주일 오후 12:30	3층주간보호센터	강사단(전도학)	토 오전 9:40			
태영아공동육아	수 오전 11:30	3층제2랩넌트실	핵심요원훈련	토 오전 10:30			
어린이사명자	주일 오후 1:00	3층제2랩넌트실	중직자대학원	주일 오후 5:00			
중고기도회	주일 오후 1:40	5층 참사랑홀	초등전도신학원	토 오후 2:00			
집중전도신학원	수시	참사랑교회	청소년전도신학원	토 오후 2:00		참사랑교회	

국내외선교지

해외선교지 (4)	해외파송자 (29)
[일본 히로시마참사랑교회] 심주환-김현숙(심성지 심성하 심성오 심성권) [C국] RTS-107신학교 [케냐RUR] 김동길 [필리핀] 다락방필리핀신학교-정희권	[미국] 최형란-권순민(권유나 권유빈) 김국한 박석훈 최봉식-최신주(최해나) 이슬 김수 강지우 정예준 [호주] 박영준-김수미(박운성 박민성) 박영환 윤소현A [영국] 박경아-니콜라(라나 아멜리) 정혜찬 [네덜란드] 배고은 [일본] 이정민 오유라 [인도네시아] 전민식 구순자
후원단체 (5)	군파송자 (2)
RUTC방송국, 총회군선교회, (사)세계복음화전도협회 (사)국제한국입양인봉사회, (사)서로사랑	[육군] 김지수 백승원

교회 역사

오금동과 함께 성장한 교회 |

1960년대 후반, 정부는 서울 전역의 판자촌을 정리하는 정착지 조성 이주사업을 계획했습니다. 이에 따라 판자촌 주민들은 청소차에 실려, 허허벌판이었던 오금동에 버려졌습니다. 한 가구에 주어진 여섯 평의 땅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이었습니다.

가난과 고통 속에 살던 이 정착민들을 안타깝게 바라보던 남대문교회의 김근숙 권사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군용 천막 하나를 빌리고, 직접 복을 치며 사람들을 불러모았습니다. 이것이 오금동에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인 오금중앙교회, 지금의 참사랑교회입니다. 대머리산에 세워진 조그마한 오금중앙교회 성전은, 마을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1980년 부임한 최정웅 목사와 함께, 이렇게 지역 사회 속에서 성장해 온 오금중앙교회는, 세계복음화를 마음에 품고 2005년에 참사랑교회로 이름을 변경했으며, 2007년에는 현재의 자리에 세 번째 성전을 지어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참된 해답, 참된 사랑인 복음을 굳게 붙잡고, 이 복음만을 말하는 복음 공동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참사랑교회는, 2018년 최정웅 목사를 원로목사로 추대하고, 정윤돈 목사를 담임목사로 위임하여 새로운 도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 교단에 소속된 참사랑교회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 가입된 건강한 교회이며, 55년 동안 지역 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자라온 토박이 교회입니다.



교회 소개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 |

참사랑교회는 종교다원주의를 반대하며, 오직 복음만이 온 세상의 해답임을 믿는 교회입니다.

렘넌트운동으로 후대를 살리는 교회 |

많은 후대들이 학교와 현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희망은 그들에게 있습니다. 참사랑교회는 후대를 살리고 인재를 키우는 것을 첫째의 우선순위로 삼고, 참사랑서밋어린이집을 운영, 지역 인재 장학사업, 방과 후 활동 및 상담활동 지원과 같은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선교로 세계를 살리는 교회 |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류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선교를 위해 세워진 참사랑교회는 창립 이후 계속해서 낙도 선교와 남아시아 선교를 후원해 왔으며, 현재는 일본 히로시마와 아프리카 남수단, 몽골 울란바토르, 필리핀 마닐라, C국 S지역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복지로 현장을 살리는 교회 |

병들고 소외된 이들의 벗이 되셨던 주님을 본받아, 참사랑교회는 지역 사회와 어려운 이웃을 섬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및 송파구와 협력하여 참사랑 장애인주간보호센터와 행복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참사랑노인데이케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렘넌트 및 사회복지선교국과 협력하여 지역 역할을 섬기고 있습니다.